1. 농업정책

□ 농업관리

○ 미루벌농사를 힘있게 지원(로동신문 4.23)

- 미루벌을 알곡생산기지로 꾸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성, 중앙기관의 일군, 정무원이 곡산군 안의 협동농장을 힘껏 지원하고 있음.
- 김정일은 “농사를 잘 짓자면 온 나라가 총동원되어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.”고 말함.
- 성은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. 각종 소농기구 8종에 2,000여점을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거 마련되어 협동벌에 보내졌음.

○ 봄철영농작업 힘있게 추진(로동신문 4.29)

- 황해남도 내 농촌에서 논밭갈이와 강냉이심기, 벼랭상모판씨뿌리기와 벼모키우기를 비롯한 봄철영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.
- 알곡생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해주시, 재령, 안악, 신천군에서는 조직사업을 추진하여 노동력과 농기계수단을 논밭갈이에 집중하고 있음.
- 협동농장에서는 트랙터운전수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있으며, 부림소를 이용하여 날마다 많은 면적의 논밭을 갈고 있음.
- 농장의 일군, 농업근로자들은 날짜별, 포전별 계획을 세우고 바람막이바자치기와 모판만들기, 종자처리, 싹틔우기 등을 기초로 하여 씨뿌리기와 벼모키우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음.

□ 과학영농

○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(로동신문 4.21)

- 김정일은 “농촌경리부문에서는 해마다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하며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매 공정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잘 지켜야 한다.”라고 말함.

· 평양시주변 농촌에서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가고 있음. 만경대농장을 비롯한 만경대구역안의 농장일군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해내고자 씨뿌리기를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음.

· 협동농장에 내려간 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주면서 모든 단위에서 그날 계획한 작업과제를 그날로 끝내도록 돕고 있음.

2. 벼농사

□ 논갈이

○ 논밭갈이 마감단계(로동신문 4.22)

· 운전벌 안의 협동농장에서 풍요로운 수확을 마련할 목표를 내세우고 트랙터를 비롯한 갈이수단들을 집중하여 논밭갈이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.

· 김정일은 “농사를 잘지어야 한다. 농사를 잘 짓지 못하면 먹는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된다.”라고 말함.

· 운전군 일군들은 포전상태에 맞게 논밭갈이계획을 포전별,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연유와 부속품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트랙터들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.

3. 밭농사

□ 이모작동향

○ 밀, 보리씨뿌리기 시작(로동신문 4.7)

· 김정일은 “농촌경리부문에서 지대별,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제철에 씨를 뿌리도록 해야 한다.”라고 말함.

· 군당위원회의 지도 아래 트랙터와 륜전기재의 기술 상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만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음음.

- 백두삼천리벌의 홍암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었음. 군과 농장의 일군, 작업반장은 밀, 보리씨뿌리기에 지난 시기 이룩한 경험을 분석하고 영농공정에서 과학기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토의를 하였음.
- 군안의 모든 농장에서는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를 많이 실어내어 포전을 기름지게 하였음.

○ 두벌농사면적을 늘여(로동신문 4.24)

- 경흥군 안길협동농장에서 북부지대의 기후조건에 맞는 종자를 선택하고 겹재배방법으로 두벌농사면적을 늘릴 목표아래 앞그루농사에 힘을 넣고 있음.
- 농장에서는 작업반, 분조, 집집마다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 앞그루감자를 심는 포전에 수십 톤씩 실어내었음.

4. 감자농사

□ 감자농사 준비

○ 감자심기 시작(로동신문 4.21)

- 량강도안의 농촌에서 도적으로 많은 감자종자처리장이 보수되고 야외감자종자처리장이 전개되었음.
- 김정일은 “감자농사에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.”라고 말함.
- 이어 대홍단군과 김형권군, 백암군, 삼지연군, 운흥군, 보천군 등 고산지대도 뒤따라 감자심기에 돌입함.
- 군에서는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종자싹틔우기를 실속 있게 한데 기초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가고 있음.

5. 농업기반

□ 물길공사

○ 조선의 대지에 개척된 3,000여리의 자연흐름식 물길 (민주조선, 로동신문 4.6)

· 김정일은 “우리는 자연흐름식물길을 많이 건설하여 온 나라의 관개체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성해야 한다.”라고 말함.

· 주체91(2002)년 10월 2년 남짓한 기간을 걸쳐 처음으로 자연흐름식의 개천-태성호 물길이 준공되었음. 현재 전국적인 총연장길이는 3,000여리에 이르렀음.

·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을 맞아 백마-철산물길이 건설되었음. 총연장길이가 약 700리에 달하는 이 물길은 3만㎾의 전력사용을 않고 평안북도의 수만 정보 논밭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공급할 수 있음.

·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이 은파군 강안리 6지선물길, 태탄군 류정해안물길 등 각각 100여리의 물길을 건설한 것을 비롯하여 주체94(2005)년 영농기전까지 많은 자연흐름식물길을 새로 형성하였음.

· 주체95(2006)년에는 평양시와 강원도, 함경남도 등지에서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더욱 진척되어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물길이 생겨남.

· 함경북도에서도 총연장길이가 근 300여리에 달하는 물길을 건설하여 수천㎾의 양수동력을 쓰지 않으면서 6,500여정보의 부침땅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게 됨.

□ 국토관리사업

○ 강하천 정리를 전투적으로(로동신문 4.1)

· 황주군에서 방대한 천주천 정리공사를 단 일주일사이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냄.

· 군에서는 천주천 정리공사를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끝낼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으며, 석정협동농장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이 이 공사에 앞장섰음.

· 7일 동안에 8,000m에 달하는 강하천구간에 제방돌입히기와 쌓기, 바닥파내기 등을 통해 큰 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가물철에는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룩냄.

○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집중(로동신문 4.19)

· 강원도에서는 봄철에 산과 들, 공원과 마을에 수종이 좋은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수십km의 도로 기술개건을 진행하고 수천㎡의 제반장석 공사를 하였음.

· 김정일은 “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.”라고 말함.

·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일군들은 시, 군에 내려가 일군과 근로자에게 나무심기와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, 강하천정리사업을 손색없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

6. 산 림

□ 산림조성

○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 활발(로동신문 4.3)

· 수도 평양의 유원지와 공원, 거리와 마을에서는 나무심기가 한창임. 특히 룡악산유원지에는 며칠사이 평양단풍나무, 느티나무, 밤나무 등 약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.

· 황해남도에서는 시, 군산림경영소, 기관, 농장 등 모두가 열심히 나무를 심어 3월에 5,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이룩냄.

· 황해북도와 강원도의 일군과 근로자들은 수백만 그루의 넓은잎나무와 바늘잎나무를 배합하여 풍치림, 보호림조성을 하고 있으며 수유나무를 기본으로 기름나무도 심고 있음.

□ 통나무생산

○ 통나무생산에서 일 혁신(로동신문 4.2)

· 김정일은 “임업부문의 모든 일군과 근로자들은 임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임업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.”라고 말함.

· 년 초부터 룡하림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, 신흥작업소에서는 통나무원천이 많은 임지개발과 트랙터길 내기 등의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.

· 삼수림산사업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, 중평청년작업소에서는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.

7. 기타 작물

□ 과수

○ 수백정보의 과수원을 새로 조성(로동신문 4.24)

- 함경남도과수련합회사 아래 과수농장에서 올해에 과수원 조성사업을 벌리고 있음.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여러 과수농장에서 700여 정보의 과일나무밭을 새로 조성하였음.
- 김정일은 “과수업부분에서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과수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.”라고 말함.
- 함주과수묘목농장의 일군과 근로자는 올해 봄에 수백 정보의 과일나무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키낮은사과나무모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원만히 생산·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.
- 룡전, 덕성과수농장이 키낮은사과나무를 심는데 앞장섰으며 선덕과수농장에서도 키낮은사과나무모와 배, 복숭아나무모를 90여 정보의 과수밭에 심었음.

○ 과수농장들을 적극 지원(로동신문 4.29)

- 김일성이 몸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를 지도하여 과일나무숲을 조성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을 《과수지원월간》으로 정함.
- 김정일은 “과일생산을 늘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.”라고 말함.
-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《과수지원월간》에 각지의 일군과 근로자들이 여러 과수농장을 힘있게 지원함.
- 평양시는 당조직의 지도아래 구역, 군안의 기관, 기업소, 공장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웠음. 평양과수농장을 비롯한 시과수련합회사아래 과수농장들에 10,000톤의 거름을 실어다 주었음.

8. 기타 보도 동향

□ 농기계

○ 농기계부속품생산을 늘인다(로동신문 4.29)

- 김정일은 “농촌경리발전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.”라고 말함.
- 농업성 농기계공업관리국 아래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과 노동자, 기술자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정신을 발양시켜 부족한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음.
- 사리원트랙터부속품공장의 일군과 로동자는 기통머리, 피스톤, 기통토시를 비롯한 트랙터 부속품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음.